

성경해석학

제 3 강

성경 연구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3 강 성경 연구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1
III. 신학적 근거(Theological Basis).....	4
A. 저자(Writer)	4
B. 독자(Audience)	7
C. 본문(Document)	11
1.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	11
2. 하나님의 조정(Divine Accommodation)	14
IV. 중요성(Importance).....	16
A. 교회 역사(CHurch History)	17
B. 현대 교회(Modern Church)	20
V. 결론(Conclusion)	21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3 강 성경 연구(Investigating Scripture)

I. 서론(INTRODUCTION)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여러 면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고고학자들은 과거로부터 유래한 사물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들은 고대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그것이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재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와 아주 흡사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일도 과거로부터 유래한 책인 성경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유래한 성경 구절들을 탐구하며 그것들이 고대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원래 가졌던 의미를 재구성한다. 성경을 고대의 문맥에서 연구하는 일은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 성령님과 영감받은 인간 저자들이 의도한 완전히 믿을 만하고 무오하고 권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이 강의는 성경해석학 강좌의 세 번째 강의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성경 연구"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개념에 집중할 것이다.

성경 연구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원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적 근거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원래의 의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원래의 의미에 대한 정의 문제를 다루어보자.

II.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말하거나 쓴 것을 오해한 경우에 보통 "글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취해 우리가 처음 의도한 것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대개는 몇 마디의 설명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성경처럼 수천 년 전에 말해지고 쓰여진 것의 원래의 의미를 알아내야 하는 경우라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우리는 차분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성경 구절의 "원래의 의미"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법을 놓고 수많은 학술적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강좌의 목적상 우리는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원래의 의미란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이 공동으로 그 본문 최초의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개념과 행위와 감정이다.

이 정의가 불러 일으키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중 몇 가지 문제만 다룰 것이다.

그럼 "전달하다"라는 단어부터 다루어보자. 우리는 이 단어를 가능한 한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성령님과 성경의 인간 저자들 모두 자신의 성경 책이 여러 가지 수준으로 전달되기를 원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경의 의사 전달을 주로 성경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생각이나 개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한 전통적인 설명이 표현하듯이, 성경은 머리와 손과 가슴의 관점에서 의사를 전달한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사용한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성경은 개념, 행동, 감정의 관점에서 의사를 전달한다. 성경 저자들은 자신의 책에서 언급된 다른 사람들의 개념, 행동,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개념, 행동, 감정에도 관심을 끌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성경 본문은 또한 독자들과의 개념, 행동, 감정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도하도록 의도되었다. 딤후 3:16-17 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딤후 3:16-17 개역개정)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성경이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을 신자들의 삶에서 성취하도록 설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가 원래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어들과 문들이 단지 좁은 지적인 의미에서 의미했던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자들이 그들의 독자들과의 삶에 미치려고 의도했던 모든 범위의 영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의 의미라는 개념을 고찰할 때 세 가지 주된 관심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첫째 관심사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본문이고, 둘째 관심사는 성령님으로부터 본문을 쓰도록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이고, 셋째 관심사는 인간 저자가 본문의 첫 수신자로 의중에 둔 독자이다.

본문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처음 독자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인간 저자가 중요한 것은 유기적 영감의 과정을 통하여 본문이 저자의 생각, 의도, 감정, 문예적 기교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독자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인간 저자가 독자들과 자신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성경 본문이 역사상의 시간과 본문의 원래 독자들이 경험했던 삶의 정황에 맞도록 역사적으로 조절되거나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저자들이 만든 본문에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성경 저자들이 본문을 통해 원래의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의도했는지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연구하는 일은 마치 본문이 여전히 그 저자와 처음 독자가 처한 역사적 상황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본문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종류의 탐구는 많은 조사, 주의 깊은 사고, 상상력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연구는 더 이상 그 원래의 배경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원래의 의미에 대한 이런 이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다루어보자.

III. 신학적 근거(THEOLOGICAL BASIS)

우리가 성경 연구에서 원래의 의미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데는 건전한 신학적 근거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저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학적 근거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원래의 독자들을 고찰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 자체의 기능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인간 저자를 고찰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다루어보자.

A. 저자(WRITER)

이전 강의(제 2 강)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고 말했다.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의 개성, 경험, 감정, 사고 방식 등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인간 저자들의 중요성은 성경의 여러 곳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 22:41-45 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마 22:41-45 개역개정)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시편 110 편의 다윗 저작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시편에 대한 그의 해석을 그것의 인간 저자가 다윗이란 사실과 연관지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에 틀림없다. 실제로 예수님의 논증은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만 납득이 간다.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하신 것처럼 모든 믿을 만한 성경 해석은 책을 쓴 인간 저자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성경을 쓴 저자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주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성경을 조명하는 방편이 된다. 이에 대한 온갖 종류의 예가 있다. 예를 들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을 생각해 보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후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도시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고 그 도시에 떨어진 재앙을 보고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더 깊고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아니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언급된 이야기들의 문맥에 비추어 그의 서신들을 읽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저자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르침을 적절한 문맥 안에 놓음으로써 그 의미를 보강한다.

인간 저자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예로,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다윗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해보라. 사무엘하는 다윗이 밋세바와 관련하여 지은 죄와 그 후에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을 다루는 데 아홉 장을 할애한다. 그러나 역대상은 이 이야기들의 어느 부분도 언급하지 않는다. 역대상은 다윗의 족보를 제외하고는 밋세바와 압살롬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생애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쓴 인간 저자들의 역사적 상황과 의도와 관련이 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저자의 내러티브 목적에 중요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독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매우 압축된 역사를 쓰고 있었다. 그가 사무엘서를 반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귀환한 지도자들에게 다윗

왕조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그 자신의 내러티브 목적에 맞는 다윗의 생애의 일부만을 기록했다.

(페닝톤[Jonathan T. Pennington] 박사) 오늘날 특별히 우리는 성경 책들이 저자와 독자 문제와 관련하여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원래 배경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정보는 특히 우리가 지혜롭고 믿을 만하게 본문을 읽고 적용하게 하여 원저자가 의미한 것이나 원독자가 듣고 이해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러한 정보, 곧 성경 저자와 성경 독자에 대한 배경 정보를 “좋은 종 그러나 나쁜 주인”으로 묘사하고 싶다. 그러한 정보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때 참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주된 방법과 주된 통로로 여긴다면 내 생각에 그것은 자주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을 인정하되, 여러분의 성경 연구의 시작이나 끝에서 그것을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로 삼지는 말라.

(워커[Peter Walker] 박사)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의 원래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먼저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성경의 권위는 저자의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하거나 재구성한 것에 있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자의 배경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저자의 배경과 개성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자와 가상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상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와 직관적이고 가상의 접촉을 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딱딱하고 이차원(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삼차원(입체)적인 것이 되도록 해 줄 것이다.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은 단락들에서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감하신 인간 저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저자들의 상황, 개성, 경험, 기교, 의도 등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경 본문의 인간 저자를 강조하는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원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인 그 본문의 처음 독자, 즉 처음 수신자에 대하여 다루어보자.

B. 독자(AUDIENCE)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통틀어 자기 백성의 역사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고대 이스라엘에게 컴퓨터로 처리한 번역문으로 주셨다고 상상해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초대 교회에게 프랑스어나 중국어로 주셨다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라. 이런 시나리오는 성경의 원래의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분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헬라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 사실, 성경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를 원래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조정하셨다.

하나님의 조정이란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가 처음 독자들에게 의해 이해되도록 작성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사상이 처음 독자들의 문화, 기술, 사회 구조, 심지어 종교 경험 등에 맞도록 조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조정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정에 이르는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조정을 생각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에 맞게 기록된 사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적용될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1 권 13 장 1 절에서 조정의 일반적인 측면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보모들이 유아들에게 혀짤배기 소리로 발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는 항상 그렇게 하신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한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지식을 우리의 미미한 능력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다.

칼빈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지성은 우리의 지성을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보모가 유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아주 낮추셔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런 종류의 보편적인 조정을 본다. 그것은 신인동형론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사람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등장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분의 의도를 바꾸시고, 질문을 하신다. 이와 비슷한 수많은 특징이 하나님의 계시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 한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조정의 스펙트럼의 중간쯤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문화적 기대에 맞추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신을 고대 근동에서 계시하셨다. 이 문화적 맥락에서 그분은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과 유사한 언약들을 세우셨다. 언어에 관해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의 독자들의 특정 언어들에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국제적인 신약 교회를 위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원래 독자들의 이러한 폭넓은 문화적 상황을 고려했다. 문화적 기대에 따른 조정의 예로 마 19:8 말씀을 들어보라.

(마 19:8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보다 앞선 절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결혼 규례를 정하셨고 이혼이 결혼의 이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모세가 신 24:1-4 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셨다.

신명기 24 장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가 이혼당하는 여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규례를 주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이혼 증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래의 독자를 위한 하나님의 조정을 계산에 넣으셨는지 유의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근거로, 예수님은 모세가 그의 처음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에 맞추기 위한 조정으로 이혼을 “허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셨다. 이혼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용납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비추어 그들의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 증서에 관한 명령을 주셨다.

이 예는 성경 단락을 연구할 때 원래의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이런 바리새적 관행에 대한 예수님의 교정은 모세의 법을 원래의 독자에게 맞춘 하나님의 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조정의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특정한 개인들에게 자신의 계시를 맞추신 것도 있다. 하나님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의,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특정한 개인들의, 장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등을 고려하셨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는 어느 특정 교회에 주어진 많은 서신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신들 가운데서 골로새서 3 장 같은 단락들에서 우리는 부모, 자녀, 종, 주인과 같은 특정 교회 안의 보다 더 작은 그룹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발견한다.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일부 바울 서신들은 실제로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내졌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은 원래 독자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성경적 계시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원래의 독자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워야 한다.

(엄[Stephen Um] 박사) 성경 저자들이 특정 독자에게 쓰고 있던 당시의 처음 독자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저자가 흠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고 있었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유대교 아래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늘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핍박할 때 그들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늘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독자들을 이해하고 구약의 다른 모든 개인과 제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 하나님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곧 원래의 독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성경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이다. 성경은 위로부터 내려온 규정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배경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것, 곧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해를 위한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일 내가 원래의 독자들이 이해했던 것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분명 내 자신의 맥락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맥락은 그들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만 나는 있음직한 해석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연구가 성경의 원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논의하면서 저자와 원래 독자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해보기로 하자.

C. 본문(DOCUMENT)

성경 단락의 원래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그 단락 자체를 살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성경의 현대 번역본들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번역본들은 오류가 없지는 않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훈적 사역 중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특정 단어나 어구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강의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성경 단락의 원래의 의미, 즉 성령님과 그분이 영감하신 인간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성경의 원어들인 구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익숙해져야 한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원어들에 대한 전문가가 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이 원어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의 원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성경 본문을 강조하는 신학적 근거는 주로 유기적 영감과 하나님의 조정이란 두 가지 중요한 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교리들이 각각 어떻게 성경 본문의 중요성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자. 그럼 먼저 유기적 영감 교리를 살펴보자.

1.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

유기적 영감의 교리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본문을 베낀 모든 사본이 완전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그 본문에 대한 모든 번역이 완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렘 8:8 과 같은 구절에서는¹ 성경 자체가 성경

¹ 렘 8:8

ESV: "How can you say, 'We are wise, and the law of the LORD is with us'? But behold, the lying pen of the scribes has made it into a lie.

개역개정: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와 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새번역: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사본들에 실수가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경 본문의 여러 번역본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유기적 영감의 교리는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원본만이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권위를 갖는다. 수세기에 걸쳐 필사되어 오면서 이 본문에 일어난 변화들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이 아니고 그 본문에 대한 번역본도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원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확신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감하신 본문을 찾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우리 시대에 성경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본은 어떤 성지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우리에게서 원본을 베낀 사본들과 번역본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본들과 번역본들의 권위는 항상 그것이 성령님의 영감 아래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실제 본문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를 전면 부인하는 이유로 자주 제시된다. 세속주의자들은 성경의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회교도들은 코란이 알라에 의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다고 자주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보다 코란을 더 신뢰한다. 이런 문제들은 매우 자주 제기되므로 잠시 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약 성경에 대한 원본이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 조금씩 다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사본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아람어 역본들도 있었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의 다양한 역본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에 적절하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는 신약 성경의 많은 사본들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들 역시 믿을 만한 사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기에 완전히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대 기독교인들은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성경의 고대 사본들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일에 전념한 학술 연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이 대부분의 다른 고대 작품들의 본문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성경을 보존해 오셨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주의 깊게 해석을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기에 여전히 적절하다.

(크루거[Michael J. Kruger] 박사) 고대 시대에 책을 물려주려면 필사자가 손으로 글자마다 그리고 단어마다 일일이 베껴야만 했다. 이런 과정에서 끼어들어 온 철자의 실수, 단어의 생략, 어순의 변경 등과 같은 필사상의 변형이 있기 마련이었다. 성경이 역사를 통틀어 정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전승되려면 이러한 실수들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고 매우 심각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원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정도이냐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원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현존하는 사본들을 보며 서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이 문제에 있어서 기쁜 소식은 우리가 매우 많은 사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고 원문이 실제로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말씀이 그 당시에 기록된 원래의 말씀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해 준다. 때때로 필사자들이 본문을 정말로 변경하긴 했지만, 우리가 매우 충실한 방법으로 원래의 본문을 되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할 정도로 변경한 것은 아니었다.

(월러스[Daniel B. Wallace] 박사) 성경은 수세기에 걸쳐 손으로 베껴졌다. 사실상 성경의 모든 사본은 주후 1454 년까지 손으로 베낀 것이다. 성경의 원형이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되었는가에 대한 짧은 대답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 대답은 성경의 원형이 어떻게 손상되었고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는가에 하는 문제까지 고려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관한 한 책별로 따로 결정해야 하지만, 성경의 복사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본문상의 변형들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위태롭게 된 필수적인 교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걸 놀라운 일이다. . .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 이런 전승 과정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본문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간주되어 오는 것으로서 이런 변형들의 어느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필수적인 교리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대 번역본들이 불완전하므로 연구가 정당화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개선하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성경 해석이 어떤 어구의 특이한 해석, 어떤 특별한 단어의 선택, 혹은 소수의 고대 사본이나 특별한 성경 역본들에만 나타나는 어떤 작은 문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특정 본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을 참고하며 확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기적 영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의 성경 연구에서 본문을 강조하는 두 번째 신학적 근거인 하나님의 조정이란 교리를 살펴보자.

2. 하나님의 조정(Divine Accommodation)

조정의 교리는 단어들, 문법, 문체 등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관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이러한 관습을 반영하는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한 가지 예로 요 20:16 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어보라.

(요 20:16) 예수님은 “마리아야”하고 부르셨다. 그녀는 그분에게로 돌이키며 아람어로 “라보니”하고 불렀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괄호 안의 말에 특히 유의하라. 이 본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나,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인용할 때 “선생님”에 대하여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 단어를 사용한 후 번역을 제시했다.

요한은 먼저 마리아의 말을 아람어 단어 [라보니]로 언급했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원래의 단어였다. 그러나 요한은 원래의 독자들 중 상당수가 아람어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 [디다스칼로스]로 번역해 줌으로써 본문을 그들에게 맞도록 조정했다. 요한은 [라보니]를 먼저 사용함으로써 마리아의 반응의 극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의 순간을 만들었다. 요한의 본문은 그의 독자들이 마리아의 기쁨에 찬 외침의 실제 소리를 상상하게 하여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그녀의 기쁨을 음미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와 같은 문예적인 기교와 관습은 성경의 원래의 본문에 들어있는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격려한다.

(비버트[Simon Vibert] 박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원래의 독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저자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의 처음 독자들을 위해 아람어나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해 주었다. 혹은 독자들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지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소는 때때로 다른 지방과 관련지어 언급되었다. 원래의 독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저자들이 모든 종류의 방법을 동원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독자들의 손에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키너[Craig S. Keener] 박사) 그것이 인간과 관계된 것이라면 모든 것은 문화적 맥락을 갖는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주신다. 그 메시지가 성경처럼 말로 된 것이면 그것은 어떤 특정 언어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것이 주어진 문화의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모든 문화에서 아주 분명하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다. . . 그러나 성경에는 지붕 주위에 난간을 만드는 것, 곧 지붕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은 일도 나온다. 그렇게 할 때 이웃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집주인이 죄책을 짊어질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근에는 평평한 지붕들이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웃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는 일도 없고, 따라서 지붕 주위의 울타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원리는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다. 그 원리는 바로 여러분이 이웃의 안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 성경의 전부가 모든 상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지만 모든 상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른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 자체는 모든 성경 단락에 대하여 저자, 독자, 및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강력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원래의 의미에 대한 이 세 가지 길잡이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 단락의 저자와 독자와 본문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를 더욱 더 잘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의미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을 오늘의 우리 삶에 더욱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성경 연구에 있어서 원래의 의미에 집중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루어보자.

IV. 중요성(IMPORTANCE)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적절한 연구의 중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 특히 종교 개혁 시대 동안, 이 과정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원래의 의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무시해 온 몇 가지 도전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교회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A. 교회 역사(CHURCH HISTORY)

원래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은 성경 해석의 새롭고 현대적인 강조가 아니다. 기독교 교회는 어떤 시기에 오늘의 우리보다 원래의 의미에 대하여 훨씬 더 적은 관심을 두며 꽤 복잡한 해석학적 체계를 옹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주요 신학자들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초대 교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이단 집단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도전에 맞서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초대 교회의 많은 저자들은 성경의 원래의 메시지만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예를 들면, 초대 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주후 130-202)는 그의 작품 **이단 논박**(*Against Heresies*) 3 권 7 장 1 항에서 바울 서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비난했다. 거기서 이레니우스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에 대한 그들의 시인과 더불어, 실제로 이 세상의 한 신이 있지만 모든 주권과 시작과 권능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 관하여 평가하면, 그들은 바울 서신을 바르게 읽는 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으로부터 오셨다고 믿은 영지주의 교사들을 반박하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신”인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주권과 시작과 권능을 넘어서는” 더 높은 신인 신약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게 했다고 믿었다. 이레니우스는 그의 책의 제 7 장을 이 영지주의 해석자들이 바울의 원래 의미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바르게 읽는 법을 몰랐다는 것을 밝히는 데 할애하였다.

중세 시대 동안 유럽에서는 주로 교회 전통의 맥락에서 성경을 보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 곧 소위 문자적 의미(*sensus literalis*)의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작품 **신학대전**(*Summa Theologica*) 1 부 1 문 10 항에서 문자적 의미는 본문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의미들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경에 어떤 혼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든 의미들이 한 의미, 곧 문자적 의미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논쟁도 풍유로 의도된 의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문자적 의미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아퀴나스는 성경에 많은 의미들이 있다고 믿었지만 “모든 의미들은 . . . 문자적 의미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자적 의미가 “어느 논쟁이든”—곧 교회에서 어떤 해석이든—“그로부터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 후에, 14 세기에서 17 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본문의 해석에 대한 교회의 통제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기존의 교회 전통에 부합하는 해석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성경의 원래의 의미에 대한 강조가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안 수많은 고대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 문헌들이 원래 언어로 유럽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문헌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것들의 원어와 역사적 배경에 주의를 집중했다. 더욱이 그들은 그 문헌들에 대한 해석을 교회의 권위와 전통보다는 원래의 의미에 기초를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15-16 세기의 종교 개혁 시대에 해석학에 일어났던 일의 많은 부분의 기초를 놓았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성경의 원어와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들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이 로마 천주교의 신학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라고 주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성경 해석의 관점은 “문법적-역사적 방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방법은 성경 안에서 증명되고,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중요했고, 종교 개혁 이래(以來) 성경 연구의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 되어 왔다.

(페닝톤[Jonathan T. Pennington] 박사) 중세 시대에 성경은 모든 사회의 교과서였다. 모든 학식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 보냈고, 성경 연구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중세 시대 동안 그러한 성경 연구에서 본문의 여러 계층에 초점을 맞추며 성경을 읽는 매우 복잡한 방식이 개발되었다. 성경의 원래의 의미, 곧 역사적인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중세 시대의 해석 방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후대의 많은 해석과 달리, 저자의 의도, 곧 원래의 의미는 좋은 독서를 위한 기초로 간주되었지만, 원래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론적 독서였고 자주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는 종말론적 독서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종말론적이고 기독교론적인 독서였다. 그러므로 저자의 의도는 중요했지만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빈잔트[Carey Vinzant] 박사) 중세 시대에 당신이 원래의 의미와 교회 전통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중세 해석자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 . . 교회 전통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임했기 때문이다. 21 세기 개신교도로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웃음으로 넘겨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면역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존 칼빈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아니면 존 웨슬레나 마틴 루터나 어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중세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일은 사람들이 믿음의 규칙의 역동성에 기초한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세 해석자들이 묻고 있던 질문은 “사도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믿음이 어떻게 이 단락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현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개념에 대한 몇 가지 도전을 고찰해보자.

B. 현대 교회(MODERN CHURCH)

우리는 성경을 포함한 모든 본문의 원래 의미의 중요성이 다각도로 의문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많은 해석자들은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능가하는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단락에 대해 많은 의미를 말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성경의 원래 의미 혹은 어떤 문헌의 원래 의미의 가치가 의문시되어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소통의 성격 때문이다.

20 세기 초에 문학 비평의 현대 학파들은 원래의 의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가장 최초의 학파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저자들과 원래의 독자들을 거의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역사가들은 저자들과 독자들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현대 문화로부터 얻는 이론들을 고대 문화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의 독자들이 고대 저자들의 의도를 믿을 만하게 식별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적 지식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우리로선 실제로 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 세기 중반에 이르러 많은 해석자들은 고대 저자들과 독자들과 밝힐 수 없음으로 인한 좌절 때문에 저자와 독자를 통째로 무시하고 전적으로 본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신 비평가들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도 없이 본문을 읽으려고 했다. 구조주의자들은 어떤 문헌에서 그 언어적 체계의 다른 모든 잠재적 선택과 비교하면서 단어들의 선택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독자 반응 중심의 비평가들은 동시대의 독자들이 본문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에서 의미를 찾았다.

20 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문학 비평가들은 본문 자체의 의미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약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일부 후구조주의자들은 고대 저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현대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본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명백한 모순들과 모호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고대 본문을 “해체”하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많은 비평학자들은 고대 저자들을 제거해 버리며 현대 독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왜곡하도록 장려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를 찾는 일의 가치에 반기를 든 비평학자들로부터 유익한 통찰력을 많이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는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석학적 독단, 곧 인간 해석자의 독단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영감하신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성경 단락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성경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개인과 문화적 운동과 교회와 다른 세력에 대항하여,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당국의 해석학적 독단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살피는 것임을 알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개인과 정치 운동과 교회와 다른 세력의 해석학적 독단에 맞서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원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V. 결론(CONCLUSION)

성경 연구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가 우리 연구의 대상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원래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신학적 근거를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의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강의 전반에 걸쳐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 해석의 많은 측면은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를 식별하기 위하여, 즉 성령님과 영감받은 저자들이 원래의 독자들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한 방식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의 각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원래의 의미는 모든 시대에 모든 백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 단락의 원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현대적 적용이 성경의 권위있는 원래 의미와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